

“영웅이 아닌 소시민의 삶 담아내”

고창 출신 김해숙 소설가
장편 ‘모던 걸즈, 달을 쏘다’ 펴내
일제 강점기 배경 ‘국궁’ 모티브
절망의 시대 건너온 청춘 서사



흔히들 역사는 이름 없는 민중들이 만들어 간다고 한다. 결출한 영웅을 떠받드는 건 이름 없는 민중들이다. 수많은 무명자들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고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고창 출신 김해숙(사진) 소설가가 최근 발간한 장편소설 ‘모던 걸즈, 달을 쏘다’ (견는사람)는 영웅이 아닌 소시민의 삶을 담았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이름을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인생을 산다. 더러 그들의 이야기가 어느 위대한 인물의 생애보다 더 강한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김 작가는 지난 2021년 장편소설 ‘금파’로 제1회 ‘고창신재호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 국립극장인 협률사에서 월매 역할을 했던 허금파의 삶과 예술을 그렸다. 실존 인물인 허



금파는 186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40년대 중반 세상을 떠났다. 기록은 많지 않지만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전북 고창으로 이주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에 대해 “내 소설에는 그 시대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다. 난 영웅이 아닌 소시민의 삶을 담아 좀 더 가까운 주변인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이 소설을 읽고 영웅이 아닌 사람들이어도 그 안에서 살아 숨쉬며, 자기만의 무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언급한 대로 절망의 시대를 뜨겁게 건너온 청춘들의 서사다. 일제시대라는 어두운 현실에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완성했다. 소설에는 일제강점기 한복판에 선 젊은이들,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만월과 국화, 정록이 등장한다.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국궁을 접했는데 관련된 어휘에 매료됐다. 국궁에 대한 책을 읽다 문득 ‘일제 강점기 여학교에서 왜 국궁 대회를 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은 꼬리를 물었고 결국 창작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설 속 만월은 공부에 대해 경성으로 가게 되고 ‘내재봉소’의 주인 두레와 그의 딸 국화, 조카 정록과 생활하게 된다. 미화여자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간 만월은 국궁을 배우게 되며, 경성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화는 아버지인 만주 유학을 떠나기 위해 두레에게 배운 재봉에 매진한다.

학교는 국궁과 재봉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며 유학을 약속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김홍정 소설가는 “김해숙은 이 소설 속의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당위성이 아니라 갈등하는 내면적 면모에 충실하고 인물 각각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풀어 가는 세대적 특징을 보여 준다”며 “이는 소설 읽기에서 민족주의 혹은 페미니즘 소설로 제한하는 익숙한 방식에 날 선 활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평한다.

한편 고창 출신의 김해숙 작가는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창작집 ‘유리병이 그려진 4번 골목’, 장편 ‘금파’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상으로 그려낸 우주 공간 ‘마술 콘서트’

광주 서구, 기획공연 다음달 22일 서빛마루문예회관



미술사 고태한



아티스트 문준혁. <서빛마루문예회관 제공>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문명, 우리가 살아가는 먼 미래는 더 나은 세상일까? 무너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우주로 나간 ‘뉴트’와 AI ‘제니스’는 미스터리한 천체 하나를 발견한다. 그로부터 지구에서 살아가던 한 소년은 차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고 모험을 시작하는데...

광주시 서구가 기획공연 ‘Feel The Magic Concert’를 오는 2월 22일 오후 3시, 7시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펼친다.

우주와 가상현실을 이어주는 차원의 문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모험을 그린 마술 콘서트로 홀로그램, LED 기술과 웨도우 그래픽 등 미디어 콘텐츠를 공연에 접목했다.

인트로 작품인 ‘제니스’를 비롯해 ‘차원의 문’, ‘뒤틀린 시공간’ 등 마술과 미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이어 계기일식을 표현한 ‘이클립스’, 영혼의 이탈과 다른 세계를 그려낸 ‘Another Spirit’을 비

롯해 ‘시간가속장치’, ‘The End 새로운 시작’ 등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저마다 빛을 활용해 우주의 아름다움과 광활함을 표현한다.

공연은 상상으로 그려낸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특수효과로 표현한다. 실제 우주과학에 기반해 공연 내용을 고증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공연에 참가하는 문준혁은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에서 마술을 연출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비대면 버블쇼에 출연했다. 이외 캐니언파크, 로보랜드 등 메인 아티스트로 활약하면서 야외·극장 공연을 펼쳐 왔다.

중국 항저우 서호 국제마술대회(동상)와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특별상 등에 빛나는 고태한 마술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고 씨는 스웨덴 매직 위켄드 초청공연에서 관객들을 만났으며 중국 베이징 마술대회 초청공연 등에 출연했다.

전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日 시 문예지 ‘5월광주항쟁의 저항시’ 소개

‘시인의 운(輪)통신’ 59호...김정운 교수·사가와 아키 공동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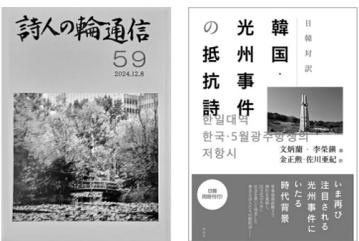
일본 헌법 9조를 수호하는 모임인 ‘9조회’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수호)가 최근 발행한 시 문예지 ‘시인의 운(輪)통신’ 59호에 김정운 전남과학대 교수와 사가와 아키 시인이 공역한 ‘5월광주항쟁의 저항시’가 소개돼 화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명한 시집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문명란·이영진 편, 도서출판 인동, 1987)의 일본어판 ‘5월광주항쟁의 저항시’를 ‘9조회’가 책 표지와 함께 내용을 소개한 것. ‘9조회’는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문예지 ‘시인의 운통신’은 지난해 7월 14일 ‘제24회 빛나라 9조! 시인들의 모임’ 이 시즈오카에서 주최, 사가와 시인이 ‘시는 세계의 공통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발췌했다.

‘5월광주항쟁의 저항시’ 소개란에는 김준태 시인의 ‘광주로 가는 길’ 전문이 실렸다.

“우리 이제 그리운 광주에 갑니다/ 남쪽의 사랑 남쪽의 부둥켜안음/ 어머니와 아버지의 광주에 갑니다/ 가슴에 쌓인 하늘 가슴으로 펼쳐이며/ 가슴



에 담기는 바다 가슴으로 출렁이며/ 우리 이제 그리운 광주에 갑니다// 아아 흰옷 사람들의 역사를 짊어지고/ 남쪽의 대숲 마을 남쪽의 응어리진 사랑 / 노래와 희망의 광주로 달려갑시다/ 가슴에 밀린 새벽 가슴으로 펼쳐이며/ 가슴에 담기는 강물 가슴으로 출렁이며/ 우리 이제 그리운 광주에 갑니다.” 김준태 시인에 대해서는 “1948년, 전라남도 해남 태생, 조선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1969년 ‘시인’ 지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 ‘참깨를 털면서’, ‘국밥과 희망’, ‘뉘통일’ 등이 있

습니다”라고 소개돼 있다. 김정운 역자에 대해서는 “전남과학대 교수. 역서에 ‘김준태 시집’, ‘문명란 시집’,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조선 시인’ 등 다수 간행했습니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사건은 세계의 민중운동 속에 위치하며 재평가받고 있습니다”라고 평하고 있다.

‘5월광주항쟁의 저항시’ 1부에는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황지우 ‘아내의 편지’, 김용택 ‘우리 사랑 광주’, 조태일 ‘광주’, 백기완 ‘지기는 누가 쫓단 말인가’, 양성우 ‘봄이 오느냐 순백 치마’ 등이 수록돼 있다.

2부에는 문익환 ‘오늘이 오면’, 정희성 ‘울 없니 나를 낳아’, 문명란 ‘부활의 노래’, 송기원 ‘한파’, 김남주 ‘학살-2’, 채광석 ‘애국가’ 등이 게재돼 있다.

3부에는 신경림 ‘어깨로 밀고 나가리라, 아우성으로 밀고 나가리라’, 고형렬 ‘장대 같은 비가’ 등이 실려 있다. 시집 원문을 편집한 문명란 시인은 책 머리에서 “외세에 의한 타율적 분단의 역사가 만든 한반도 모순의 총체적 집약으로서의 광주는 우리 민족의 이상적 좌표인 민주와 통일을 향해 나아간 민족적 에너지를 뜨거운 분출이었음을 이 시집을 통해 살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오페라단 배우 도전하세요

객원배우 이달까지 모집...다음달 4일·18~20일 각각 오디션

광주시립극단과 오페라단이 상반기 공연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원광연)은 세계명작 시리즈 ‘위선자 타르튀프’에 출연할 객원배우를 오는 31일까지 지원받는다. 오디션은 2월 4일 진행하며 실연은 4월 24~26일 총 5회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지원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필수 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면접이며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선자 타르튀프는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정치철학과 사상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거짓 신앙을 앞세워 한 가문을 농락

하려는 교직자 타르튀프를 매개로 중세 신정정치의 부활을 꿈꾸던 수구세력의 야심을 고발한다.

아울러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은 ‘2025 정기공연’ 출연자 오디션을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2월 18~20일 실연 심사하며 전형 부문은 성악 파트다.

전국에서 공개 모집하며 응시 작품은 도나체티 ‘사랑의 묘약’,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등이다. 지방 배역 아리아 1곡과 자유 아리아 1곡을 준비해야 한다.

공모 중 세 개의 공연에 응시(중복 지원) 가능하다. 관련학과 졸업생이나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